The Church History of Korea

한국교회사

The Church History of Korea

김대건의 순교

- 초대 로마제국의 어떤 기독교인들이 19세기 초반 70년간에 조선 교인들이 겪은 것과 같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는지, 잘라 말하기를 어려운 것 같습니다.

-C. H. Robinson, 1915.

The Church History of Korea

- 기해 교난 후 6년, 1845년,
  - 앙베르 주교 후임
    ---- >페레올 신부
    김대건(1822-1846)과 함께 밀입국
- 김대건의 순교 결과
  -- 쇄국배외를 굳히는 사건

The Church History of Korea

- 김대건 생애
  -- 1821년 충남 내포 태생
  -- 모방 신부에게 발탁
  ----- 유방제와 함께 16세에 청국, 마카오 유학
  -- 서품(1845년 8월) 직후 입국 ----24세
  -- 서양과학에 출중
  -- 기해 교난(프랑스 신부 처형)에 대한 책임으로
  프랑스 함정 3척 충청도 입항
  ------ 위협만 하고 물러갈 것을 우려.

The Church History of Korea

- 프랑스 병력 철수로
  천주교인 박해
- 1846년 9월 15일 김대건 순교------25세
- 머리 유해 --- 가톨릭대 신학부 성당 안치

The Church History of Korea

- 병인교난
  -- 원인: 가톨릭교의 수적 부흥
  철종 즉위로 인한 평화
  ----- 신유박해 당시
  사약을 받은 은언군의 직손
  1857년 1만 1천여 신자 급증
  --- 고종1년 당시 2만 3천여 신자
  --- 외국 선교사 12명
  제정 러시아의 통상 요구 및 협박의 대책으로
  ---- 프랑스에 대한 기대감과 좌절

The Church History of Korea

-- 프랑스 선교사와 교회의 미온적 대처에 대한 대원군의 실망
-- 청국에서의 가톨릭 박해 시기
-- 병인박해 발발
-- 외국인 선교사 5명 (브뤼티니에르, 보류, 도리, 프티니콜라, 푸르티에) 처형
--대원군 집정하에서
약 12만 명 학살 (? --- 문헌 '한국통사')
3년간 약 8천여 명 학살

The Church History of Korea

- 결과
--- 프랑스와의 충돌
--- 리델 신부외 2명 외국인 신부와 조선 가톨릭 신자 11명, 신창(아산)에서 중국 산동성 프랑스 함대에 지원 요청
--- 제1차 한강변 서강, 2차 황해 강화 군함 7척
--- > 병인양요 이양선 사건
--- 프랑스 신부는 제국주의 침략의 앞잡이라는 비난
--- 대원군, 양화진(프랑스 함대 침입한 곳) 절두산 아동을 포함한 학살

The Church History of Korea

신미교난과 미국

■ 제너럴 셔먼 호 사건
-- 천진 체류 미국인 프레스톤의 배
--- 덴마크인 선장 페이지, 영국인 선원 호가트, 영국인 목사 토마스, 미국인 윌슨, 청국인 19명 승선 후 황해도 황주 대동강 입항
--- 무장 상선
(런던 선교회 선교사 에드킨스의 비판 참조)
-- 로버트 토마스 개신교 선교사의 태도

The Church History of Korea

-- 우리말 실력: "벼의 줄기 정도"
-- 선교사임에도 무장
--- 황해도 옹진 방문시, 총을 차고 쇠몽둥이
--- 군인으로 비침
--→ 병인 양요 알고 있었을 것

- 무리하게 상류 진입
-- 중군 나포 -- > 교전 -- > 양각도 좌초
-- 수비군, 방화 -- > 토마스 외 피살
- 미 함대, 황해 연안 배치

The Church History of Korea

- 남연군(대원군 생부) 도굴 사건
-- 천주교인에 의한 도굴
-- 도굴한 유품으로 대원군과 협상하려는 목적
---- > 24명 처형
- 신미교난
-- 제너럴 셔먼호 사건 5년 후 1871년 극동함대 파견
-- 영종도 --- 광성진
-- 교전 없이 회군
-- 결과: 전국 척화비